



프랑스, 새로운 농약관리법 승인

프랑스는 농약등록과정에 상업적 승인과는 별도로 위해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절차는 농업지양법의 일부로 지난 2005년 12월말에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올해 1월에 공포되었다.

새로운 법안은 국립식품안전청이 농약의 위해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반면, 상업적 승인은 농업부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공공보건을 희생하고 사회경제적 요인만 고려한다는 의혹 없이 농업부가 제품의 위해성 및 유익성을 분석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새로운 법안은 위험성 산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소견에 대한 “객관성, 보전성, 독립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정치적 책임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농업부 관계자는 전하였다. 이 법(70조)의 또다른 점은 잠정승인에 관한 것이다.

1993년에 잠정 승인되어 EU 농약등록지침(91/414)에 의해 재검토 될 때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제품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다. 법에선 이 승인이 2011년까지 만료로 되어 있다.

꿀벌 피해와 관련하여 일시 판매중지 되어있던 살충제 리전트(fipronil)와 가우초(imidacloprid) 승인 과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양봉조합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법에서는 이런 위험성은 위험성 평가가 용이한 성분에만 언급하고 있다고 농업부에서

는 말하고 있다. 리전트 경우 이런 것과는 다소 다르다고 농업부 Dominique Bussereau는 말하고 있다.

2004년 2월 농업부가 fipronil 기반제품을 EU 원제 평가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사용 중지를 내렸다. 반면 가우초의 경우는 2004년 7월에 철회되어 옥수수 종자처리제로 승인되었다.

업계의 수용...

프랑스 농약공업협회(UIPP)는 70조에 대하여 수용 입장을 펴고 있다. 환경에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UIPP의 Jean Charles Bocquet이사는 밝혔다.

현재 프랑스의 농약승인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으며 신뢰도 부족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결국 제품 시장출시가 지연되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 보다 프랑스 농업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다. 프랑스 농약공업협회가 새로운 시스템을 수용하는 이유는 단지 현재상황을 개선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등록시스템에 있어서, 이 법은 농약산업에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다른 회원국에서 승인된 제품의 생산, 매입 및 상업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Bocquet씨는 말했다.

일본, 2005농약매출 1.3% 감소

2005년 9월말 현재 일본의 농약매출은 전년대비 1.3%감소한 3천292억8천5백만엔(30억7천2백만달러)였다고 일본농약공업회(JCPA)가 발표하였다.

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하여 일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해충 발생 감소와 태풍 피해로 농약매출이 감소되었다. 수량으로는 3.4%감소한 23만5천596톤이 판매되었다. 열악한 기후조건도 영향을 미쳤

지만 10kg/ha 살포하는 고효성입제와 3kg/ha 처리하는 일발 “점보”수도제초제와 같은 저투입 제형으로의 지속적인 전환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육묘상에서 살균제와 기타 제품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전체 수도 농약이 감소하였다. 수도와 과수에서 낮은 농약매출을 기록하였지만, 채소 및 밭작물에서의 살충제와 살균제 사용은 금액으로 1.2%, 수량으로는 2.5% 증가되었다.

2004/2005 작물별 농약매출

작 물	수 량		금 액	
	(톤)	증감(%)	(백만엔)	증감(%)
수도	98,670	-7.8	118,979	-1.9
살충제	23,336	-0.6	14,615	+1.8
살균제	15,695	-20.4	17,837	-3.3
살균·살충제	24,841	-13.7	31,686	-5.2
제초제	34,798	-0.6	54,841	-0.5
과수	24,104	-7.5	56,622	-3.9
살충제	11,179	-9.5	26,454	-3.6
살균제	7,943	-6.9	19,618	-4.8
살균·살충제	59	+11.3	97	+1.0
제초제	4,923	-4.1	10,452	-3.0
채소 및 밭작물	89,634	+2.5	110,467	+1.2
살충제	49,298	+5.0	54,714	+3.0
살균제	28,230	+3.5	37,124	+1.5
살균·살충제	915	-10.95	84	-5.3
제초제	11,190	-8.0	18,045	-4.2
기타 작물	15,706	-4.2	30,886	-6.2
살충제	4,082	-3.0	6,171	-7.9
살균제	1,076	-10.3	5,130	-8.2
살균·살충제	376	-8.1	298	-10.2
제초제	10,172	-3.8	19,286	-5.1
미분류	7,482	+7.1	12,330	+8.6
생장조정제	2,361	+2.7	8,690	+6.0
살서(鼠)제	29	>100	28	>100
계면활성제	5,077	+8.8	2,807	+12.7
기타	16	+45.5	805	+22.2
총 계	235,596	-3.4	329,285	-1.3

*자료 : 일본농약공업회(JCPA)



중국, 농약수요 6% 증가 예상

30 개 성(省) 식물보호센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올해 중국의 농약수요는 6% 증가한 29만9천6백톤에 이를 전망이라고 중국화학뉴스는 보도하였다. 9만3천7백톤의 유기인계와 5천271톤의 카바메이트 약제를 포함하여 10.7% 증가한 14만2천5백톤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Dichlorvos 수요도 37.9%, 3만3천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감소하려는 높은 독성의 유기인계 약제는 2004년 1만7천3백톤에서 1만2천5백톤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살균제와 제초제 사용은 크지 않은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살균제 수요는 2005년 보다 3.1%증가한 7만5천4백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살균제로는 copper sulfate, carbendazim, thiophanate-metyl 그리고 chlorthalonil이다. 제초제 사용은 6억9천3백톤으로 3.2%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성분으로는 glyphosate, butachlor, atrazine 그리고 paraquat가 있다. 생장조정제 사용은 439톤의 paclobutrazol과 1,132톤의 ethephon을 포함하여 2천987톤으로 11.3%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Nippon Kayaku, 구조조정 단행

Nippon Kayaku는 마케팅 활동을 고 양시키고, 관리조직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번 구조조정은 일본농약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감소의 영향을 받아 이익이 떨어짐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 3월 31일 현재로 자국내 매출이 2.1% 감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신제품 부족을 동반하게 되었으며 수익이 떨어지는 슬림프를 겪게 되었다고 Nippon Kayaku는 전하였다. 구조조정은 판매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신제품 마케팅활동을 가속화하고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슬림화하여 농약사업을 활성화

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업의 변화....

영업의 변화에 있어서, Nippon Kayaku는 영업지점장을 영입하여 센다이와 삿포로에 2개 영업소를 열었다. 이들 영업장은 지역 도매상과 소매상간에 더욱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회사는 일본 내에서 전통적인 영업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관리 조직은 5개 부서에서 3개로 축소되었다. 국내 사업부, 해외사업부 그리고 마케팅&개발부는 하나로 묶었고 사업집행부와 원제부는 그대로 남아있다. 회계방법의 변

화로 매출이 2006년 회계연도에 크게 감소될 것이지만 실질 매출은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이 회사는 알려주었다. 개혁에는 다소 고통이 따르지만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살충제 스크리닝...

반면, 이 회사는 이미 진딧물 및 반시충에 대한 후보약제에 적용하고 있는 새로운 스크리닝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곤충의 조기 변태를 일으키는 호르몬 활동을 감지하는 것으로 특수 곤충호르몬의 반응자 전달에서 유전 변이가 일어난 과실파리(Drosophila

melanogaster) 유전자를 이용한다. 이들은 빛을 발산하는 반딧불 효소와 관련되어 있다. 반응자에 붙은 화합물은 효소 합성을 일으키고 빛을 발산한다. 이러한 방법은 50개 정도 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하여 1일 2,000개 화합물을 스크리닝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2003년부터 곤충 유전자를 이용하여 농약을 개발, 연구를 시작하였다. Nippon Kayaku는 이미 과수와 채소에 사용하는 곤충생장조절제, Matrix(chromafenozide)를 상업화하였다. 이 약제는 몇몇 아시아와 중동 국가에서 승인이 되었고 남미에서는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바스프 · 뉴팜, Imazapyr 거래

바스프 (BASF)와 뉴팜(Nufarm Americas)은 바스프의 이미다졸리논계 비선택성 제초제인 Imazapyr의 다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금년도에 뉴팜은 몇몇 시장에서 Imazapyr 기반 제품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바스프는 Arsenal, Habitat, Stalker과 Sahara라는 상표를 포함한 다양한 이름으로 이 비선택성 제초제를 판매할 것이다.

이번 거래는 바스프와 뉴팜의 통합, 강화된 유통채널로 인하여 Imazapyr 기반 제품이 시장에서 확대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우리는 Imazapyr의 라이프사이클 관리전략의 일환으로 뉴팜과의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만족스럽다”고 바스프의 미국 특수제품부 Stephen Briggs이사는 말하였다. 이 회사는 신규 제품

출시와 현재 제품의 최적화를 통하여 비농경지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팜은 이번 거래를 북미지역에서 비농경지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중요단계로 보고 있다. “앞으로 Imazapyr가 우리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약제가 혼합제품과 대체약제 선도 공급자로서의 우리위치를 강화하도록 도와줄 것이다.”고 뉴팜측은 밝혔다.

2005년 12월말에 결정된 최근 합의에 이어 바스프와 뉴팜과의 거래가 더 있을 것이다. 뉴팜은 2005년 초에 바스프의 제초제 Imazamethabenz의 유럽외 지역 사업권을 획득하였으며 2004년에는 Phenoxy의 세계 제초제 사업권을 사들였다. Y